

여성정책 국내동향



2026년 8월 1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주요 현안

성평등가족부, 여성고용 개선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성평등가족부는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 미이행 사업장 37개소의 명단을 공표함.

- 이번 공표 대상은 동종 업종, 사업장 규모에 비해 여성고용 비율이 3년 연속 낮고, 개선계획 이행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임.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관리자 비율을 제고하는 등 노동시장의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며, 2026년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346개소, 지방공사·공단 166개소, 민간기업 2,283개소 등 총 2,795개소임.

참고자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7. 29.]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236

성평등가족부,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성평등가족부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0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 이번 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단위 조사로, 2025년에는 디지털 강압적 통제*, 기술매개형 스토킹** 문항을 신설·확대해 다변화된 가정폭력 양상을 반영함.

* 디지털기기 이용 위치 확인 및 일상 감시, 온라인 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허락받도록 함

** 전화·이메일·메신저·SNS 등으로 연락 시도 및 문자·영상 전송, 본인 SNS나 온라인 공간에 개인 정보나 허위사실 유포, GPS·휴대폰 앱 등으로 위치 감시 및 추적 등

참고자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7. 30.]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237

〈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

- ▣ **(1년간 피해 경험)**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은 5.9%로, 2022년 7.6% 대비 1.7%p 감소
- ▣ **(이별 폭력)** 이혼·별거·동거종료 경험자의 50.0%(여성 59.6%, 남성 40.0%)가 이별 전·후로 폭력 피해를 경험, 평생 동안의 피해 경험률 14.4%보다 3배 이상 높음
- ▣ **(스토킹)**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율은 여성 29.1%, 남성 18.9%였고, 물리적 접근형 스토킹, SNS 감시 등 기술매개형 스토킹 모두 여성 피해율이 높아
- 스토킹 피해 여성의 38.2%가 6개 이상 폭력유형이 중첩된 복합 피해를 경험
- ▣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도는 낮아졌으나, 가정폭력을 피해자나 개인의 문제로 여기는 인식은 일부 강화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공동 대응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 성평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힘.

-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기관별 디지털성범죄 대응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의 불법사이트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
- 특히 지난 4월 출범한 통합지원단이 분석한 불법사이트 3만4,628건의 심층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발표 예정인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방안(안)'의 주요 내용을 협의하고, 기관별 역할과 협업 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임.

참고자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7. 30.]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11238

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금)부터 8월 24일(월)까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 동 개정안은 인구 관련 사전협의 대상 범위,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 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업무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았음.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정(2026. 9. 10. 시행)됨에 따라 인구 관련 예산의 사전협의 대상, 인구전략위원회 참여부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함임.

참고자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7. 30.]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1486&tag=&nPage=3

아동·청소년 성착취 상담채널 '디포유스', 3년간 1,283명 상담 지원

☞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상담채널 '디포유스(d4youth)' 개설 3년간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자료집을 발간하고, 전국 1,000여 개 아동·청소년 유관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힘.

* 디포유스(@d4youth: 청소년(Youth)을 위한(for=4) 디지털(Digital) 채널) / 카카오톡(채널), 라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트위터)에 상담 채널 운영 중

☞ 성과 분석 결과, 디포유스는 지난 3년간 피해 아동·청소년과 조력자 등 1,283명을 상담했으며, 이 가운데 피해영상을 삭제지원, 심리상담, 수사·법률 지원 등 총 325건의 피해지원을 연계함.

참고자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7. 31.]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11240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전문위원회 개최

☞ 성평등가족부는 원민경 장관 주재로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개(법조계, 현장 관계자 등)가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힘.

-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여성폭력 대응 환경 변화에 발맞춰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관련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삭제 요청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불법 유포사이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함.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전문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소위원회로, 제1전문위는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함.

참고자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8. 3.]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11244

보건복지부,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수급자규모, 급여수준 및 만족도, 장기요양기관현황,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처우 등에 관해 조사한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 장기요양실태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19년 이후 3년마다 실시하고 있음.

🔍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장기요양 수급자) 85세 이상 비율 증가, 재가 생활 욕구 확대
- (수급자 가족) 장기요양서비스로 부양부담 완화, 재가 돌봄 의향 증가
- (장기요양요원) 종사자 고령화, 비경제적 근무 이유 증가
- (장기요양기관) 재가 기관 확대, 이용자 모집·인력채용 어려움
- (정책 요구) 이용시간 및 서비스 종류 다양화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 8. 7.]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1533&tag=&nPage=2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8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함.

- 이번 개정은 「남녀고용평등법」(‘26.2.19. 3.17. 공포), 「고용보험법」(‘26.3.17.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등이 본격 시행될 예정임.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 8. 11.]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68

결혼 페널티 해소하는 세제개편 발맞춰 혼인·출산 지원 강화 추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혼인·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지원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다고 밝힘.

- 이번 개편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던 세제상 불이익, 이른바 결혼페널티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결혼을 해도 기존에 받던 혜택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한 것이 핵심으로 무주택 주말부부 주택임차차임금 소득공제 각각 적용, 혼인으로 경차 2대 보유시 1대분 유류세 환급, 출산지원금 비과세, 임신단계까지 확대 등이 포함됨.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이번 세제개편안의 혼인·출산 지원 조항들을 청년·신혼가구 자산형성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로 통합 반영할 예정이며, 「2026년 세제개편(안)」은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됨.

참고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6. 8. 12.]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588&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S&pageIndex=1>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가족· 저출생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2026. 7. 23.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가정에 대하여 주기적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 지도·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고,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족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 한부모가 안전하게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안 제4조제1호의3 및 제17조의6 신설 등)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8인)	2026. 7. 30.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아동양육 위기가구의 돌봄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고, 취약계층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비스 접수 및 제공 사실을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아동통합서비스수행기관(드림스타트 등)에 공유·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가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의 허브(Hub)로 작동하도록 하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과 돌봄지원체계 간의 연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안 제13조제8항 신설 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2026. 7. 30.	국가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아동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하여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기여(안 제59조 후단 신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2026. 7. 31.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의 지원 대상 연령을 24세 미만까지 확대함으로써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한부모 자녀가 충분한 기간을 갖고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안 제4조제5호 및 제19조제1항제3호)
여성고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2026. 7. 30.	현행법에 동일가치노동의 정의를 명시하고, 차별적 처우를 확인하기 위한 근로자의 정보요청권 및 사용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신설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 강화(안 제2조 및 제26조의2 등)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2026. 8. 7.	성평등가족부로 하여금 고용분야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 반영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안 제19조의2,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6까지 및 제55조 신설)
젠더 폭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2026. 7. 2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단일화함으로써, 해당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근절(안 제13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4인)	2026. 7.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4개 법률과 함께, 현행법에도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안 제25조의11 신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의원 등 10인)	2026. 7. 30.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취업자 등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 개선(안 제29조의3제6항 신설 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2026. 8. 3.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에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 보호(안 제17조제5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2026. 8. 3.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추가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과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안 제7조의4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의원 등 11인)	2026. 8. 6.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정신건강증진시설 등도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시킴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더욱 두텁게 보호(안 제56조 및 제57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의원 등 10인)	2026. 8. 6.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아동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안 제29조의3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2026. 8. 10.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 단체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또는 개선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해당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역량 제고(안 제46조 및 제47조)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도자료

유연한 근무환경, 여성의 경력유지에 기여. 유럽 주요국 비교와 국내 분석에서 ‘육아휴직 이후 유연근무’ 중요성 확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일생활균형제도의 여성 노동시장 영향 연구」(연구 책임자 : 정성미 연구위원)를 통해 유럽 주요국의 일·생활 균형제도 운영 현황과 우리나라 육아휴직·유연근무제의 여성노동시장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함.

🔍 유럽 주요국 비교 결과, 여성의 고용성과는 근로시간과 근무 장소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나타남.

참고자료

- <https://www.kwdi.re.kr/plaza/bodoView.do?p=1&idx=134190>
(배포일: 2026. 8. 3.)

•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연구보고서] 2026 한국의 성인지 통계	2026. 8. 3.	연합뉴스	고교 평교사 3명 중 2명이 여성인데... 교장은 남성이 78%	https://www.yna.co.kr/view/AKR20260731153700530?input=1195m
	2026. 8. 3.	경향신문	여성 교사 3명 중 2명인데, 교장은 여전히 소수...교육계 '유리천장' 지속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030824001
	2026. 8. 3.	매일경제	"여교사 대부분이지만 교장은 왜 남자만?"...교육계 유리천장 여전	https://www.mk.co.kr/news/society/12114795
	2026. 8. 3.	연합뉴스 TV	전체 교사 3명 중 2명 여성... 교장은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아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8031050167XT
	2026. 8. 3.	국민일보	고교 평교사 65% 여성인데... 교장은 21%뿐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9000000542&cp=nv
	2026. 8. 3.	EBS	고교 여성 평교사 64.9%... 교장은 21.7%뿐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753824/N
	2026. 8. 3.	경향신문	고등학교 평교사 65%가 여성인데... 교장은 남성이 78%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031539011
	2026. 8. 3.	여성신문	답페이크 17배·스토킹 13배 폭증... 처벌은 절반만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0614
	2026. 8. 4	여성신문	한국 여성, 남성보다 오래 살지만 더 오래 아프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0612
	2026. 8. 4.	서울신문	육아휴직 후 일터 떠나는 워킹맘... 유연근무가 붙잡았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8/04/20260804012009?wlog_tag3=naver
	2026. 8. 10.	노컷뉴스	[기고]왜 동급생 사진으로 답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을까?	https://www.nocutnews.co.kr/news/6559200?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60810050036

일생활균형제도의 여성 노동시장 영향 연구	2026. 8. 3.	뉴스핍	육아휴직 이후 '유연근무' 병행할수록 여성 고용·임금 손실 완화 효과 커진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03000121
	2026. 8. 3.	뉴시스	여성 육아휴직 쓰면 월급 7.7% ↓ ... 2년차까지 감소 지속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803_0003733495
	2026. 8. 3.	이투데이	"육아휴직만으로 한계"...여성 경력유지 해법은 '복귀 후 유연근무'	https://www.etoday.co.kr/news/view/2610349
	2026. 8. 3.	연합뉴스	"유연근무 병행하면 육휴만 쓸 때보다 경력단절 줄어"	https://www.yna.co.kr/view/AKR20260803075200530?input=1195m
	2026. 8. 3.	한국경제	육아휴직 후 유연근무 병행 시 여성 '경력단절' 줄어든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0320257
	2026. 8. 3.	아시아 투데이	육아휴직 뒤가 더 중요했다... 유연근무 기업, 여성 고용확률 더 높아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803010000686
	2026. 8. 3.	한겨레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여성 고용 유지에 도움..."근로시간 단축과 연계해야"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71230.html
	2026. 8. 4.	아시아경제	육아휴직 후 유연근무 도입... 여성 고용확률 13%p 높아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80409235752539
[연구보고서] 인구 감소 시대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성과와 과제	2026. 8. 3.	이데일리	'장학금도 기본소득도 청년 못 붙잡았다... 인구소멸지역 청양의 현실 [르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94086645543712&mediaCodeNo=257&OutLnkChk=Y
KWDI 이슈페이퍼_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포괄적 가족정책 모색	2026. 8. 10.	경향신문	가족은 지옥, 혼자는 외롭다... '나'는 누가 돌볼까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00600091
	2026. 8. 11.	경향신문	삶의 기본 단위는 '가족' 아닌 '개인'... 2040 여성은 '다양성' 원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11630001



유관기관 연구동향

OECD '더 나은 삶 지수(BLI)'의 동향과 함의(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개편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LI)' 체계를 소개하고, 이를 이용하여 한국의 삶의 질 현황을 파악함.

참고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Issue&Focus, 2026. 8. 10.]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focus/view?seq=76341>